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5·18 추모열기 고조



국립묘지 묘비엔 연두색 스텐드
정부기념식 행사장 꾸미기 한창
스텝 투어·온라인 추모 잇따라
오늘 저녁 금남로 등서 전야제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묘비를 마다 연두색 스텐드가 둘러져 있어 눈길을 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41주년을 맞은 ‘국립5·18민주묘지’가 새 희망을 상징하는 ‘연두색’으로 물들었다.

5·18민주화운동 유족회가 41주년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연두색의 스텐드를 모든 묘비에 두른 것이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스텐드는 41주년을 맞아 미래세대에게 오월 정신을 전달하자는 뜻과 유족들 스스로 행방불명자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자는 다짐의 의미를 담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식이 다가오면서 추모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립묘지는 16일 빗방울이 내리고 있음에도 정부기념식을 앞두고 행사장 꾸미기가 한창이었다.

16일 오전 국립묘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참배객 수가 줄어들고, 방문객들도 서로 거리두기를 하는 탓에 예년에 비해 한가한 모습이었으나 추모 열기만은 여전했다.

민주묘지 정문을 통과하기 전부터 민주로 양옆의 가로수에 줄지어 내걸린 사회 각계단체의 추모 현수막과 정문부터 300m에 이르는 ‘민주의 문’까지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추모의 글귀가 적힌 수천 개의 노란색, 흰색, 분홍색 리본이 참배객들을 인도했다. 방문객들은 추모리본에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않겠습니다’ 등의 글귀를 적었다.

국립묘지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에 비해

참배객이 줄었지만 5월 들어 묘지를 찾는 참배객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날 국립묘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발병 전 1월 2만 2438명이었던 참배객이 2월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방문객은 7758명으로 줄고 3월 3570명, 4월 4557명으로 감소했다가 5월에는 14만 363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참배객들은 1월 2741명→2월 3876명→3월 4838명→4월 7946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난 15일까지 2만 1765명의 참배객 다녀 갔다.

5월 이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5월 영령을 추모하는 분위기는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직접 참배를 하지 못하면서 온라인 상의 추모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41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 5·18추모관과 5·18기념재단홈페이지 사이버 참배 코너란에도 추모의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1980년 오월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5·18 스

텟프 투어’의 열기도 뜨거웠다. 5·18민주광장, 전일빌딩245,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자유공원, 5·18구묘지, 국립5·18민주묘지 등 6곳에서 진행되는 스텝 투어에서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다.

이날 오전에도 서울에서 온 김준식(45)씨는 초등학생 3학년·5학년인 두 아들과 국립5·18민주묘지의 민주의 문에 있는 방문 스텝프를 찍었다.

김씨는 “대학생때 우연히 방문하게된 5·18묘지에서 느꼈던 막막함과 미안함 그리고 자랑스러운 기분을 두 아이에게도 전달해주고 싶어 주말을 맞아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면서 “5·18에 대해 잘은 알지 못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5·18교육 자료 등을 보고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유족회의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 행사위원회는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을

추모 공간으로 선포하고, 지난해 치루지 못한 전야제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오후 7시 30분 오월풍물굿을 시작으로 8시부터 본격적인 무대 공연이 펼쳐진다. 연대의 장, 항쟁의 장, 계승의 장 총 3부로 구성 합창,연극,미디어아트,노래패,랩,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공연형태로 미

얀마 민중들에 대한 연대의 마음과 무명열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 5월의 희망메시지 등을 전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전야제에서는 프랑스 뮤지컬 공연단이 직접 공연하는 ‘레미제라블’ 공연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대 10여 단체 ‘오월 광주’ 역사 탐방 나서

전남대학교가 5·18 41주년을 맞아 역사탐방에 나선다.

전남대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정성택 총장을 비롯해 평의위원회와 총동창회, 전남대병원, 민주동우회, 노동조합, 조교협의회, 총학생회, 5·18연구소 등 10여개 학내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오월 광주 역사탐방’을 갖고,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탐방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시작으로, 전

일빌딩 245와 전일마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을 거쳐 오월어머니집에서 주먹밥을 체험하고, 이이남 스튜디오 방문으로 이어진다.

참여자들은 또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분향하고, 전남대 관련 안장자 27위에 대해 개별 참배한다. 또 망월동 구묘역에 안장된 5위에 대해서도 참배하고 이들의 낫을 위로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어떻게 이런 일이... 화이자 백신 하루 두 번 접종

방역 당국, 광주 서구 80대 치매노인 접종 여부 확인 허술

80대 남성이 하루에만 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나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의 허술한 업무처리가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남성은 폐렴 증상과 염증 수치 상승 등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광주 서구보건소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에 거주중인 A(85)씨는 지난달 28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연이어 두 차례 받았다.

A씨는 지난달 7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고, 2차 접종 일인 지난달 28일 오전 9시 55분 접종을 받았지만, 30여 분 후인 10시 23분 또다시 접종을 받았다.

A씨는 2차 접종을 마치고 접종센터를 나섰지만, 치매를 앓고 있어 자신이 접종 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다시 접종을 받기 위해 접종센터로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접종력(接種歴)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신원확인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접종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구청 직원의 업무 숙지가 미흡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방역당국은 A씨를 과용량 접종자로 분류하고 7일 간 이상징후 등을 관찰했지만 7일 간 별다른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A씨는 뒤늦게 폐렴증상과 염증 수치 증가, 혈전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A씨의 증상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서구 어린이 생태독서운동회 성료

광주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주관한 ‘2021 어린이 생태 독서운동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16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15일 풍암동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에서 어린이와 학부모 등 4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생태가족 책놀이 운동회, 생태독서! 그린토요일!, 생태주제 동극 공연, 생태 체험 ZONE 등 도서관 곳곳에서 다채로운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또 생태도서 영상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우수작 연속 상영 시간도 마련됐다.

도서관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독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노후시설 개보수 및 온실가스 감축공사 등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로 탈바꿈한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 그림책 읽어주는 고양이, 북스타트 인형극, 북스타트 특강 등 오감으로 느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